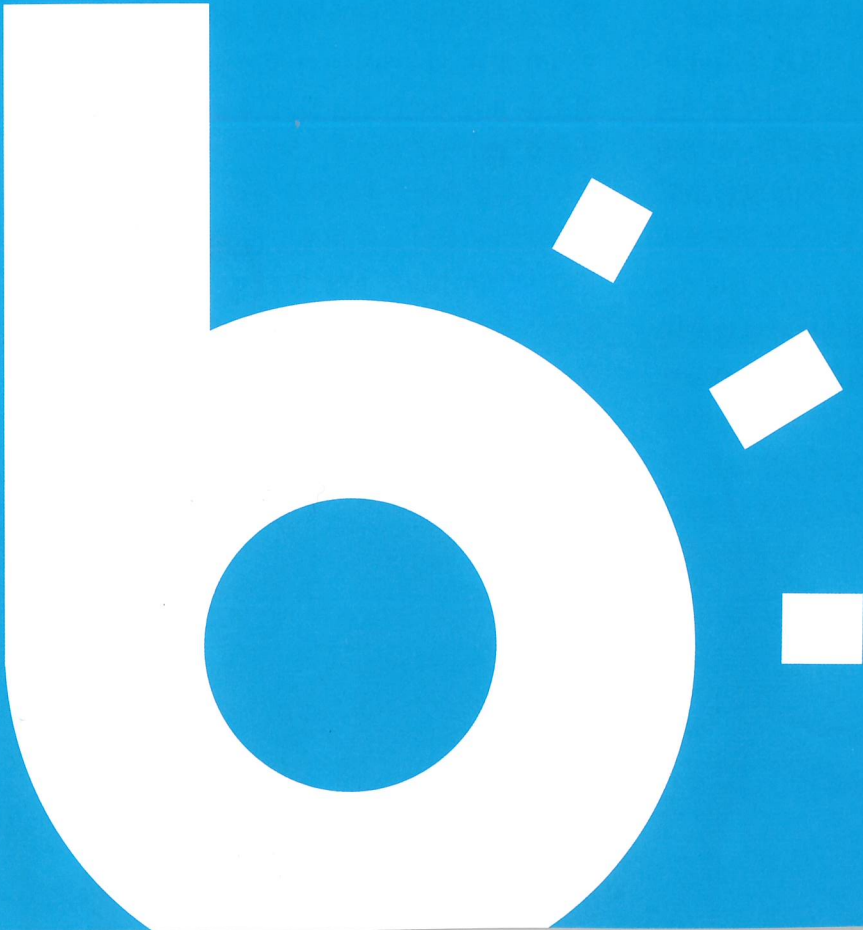




제주농업을 넘어
제주 산업을 이끌 큰 걸음으로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글 편집부 / 사진제공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미래 먹거리’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된다. ‘미래에 각 산업과 연계하여 관련 주체들을 먹여 살릴 거리’를 의미하는데, 코로나19 이후,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단어가 됐다. 일상뿐 아니라 사회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초래되면서 미래 먹거리로 주목했던 사업들에도 변화의 흐름에 맞춘 방향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 아이템들로 대상을 변경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의 방법과 방향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뀐 환경과 미래 전망에 부합하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찾기가 향후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에 제주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선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래 제주농업’을 위한 핵심 성장동력인 ‘제주형 6차산업’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제주농업뿐 아니라 제주 산업 전반을 성장시켜가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제주형 6차산업’의 견인차이자 든든한 뒷심이 되어주고 있는 「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의 안순화 센터장을 만나, 제주 6차산업의 현황과 전망, 미래 제주 산업을 위한 밑그림에 대해 들어 보았다.



6차산업의 핵심은 1차, 2차 산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체험, 관광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시켜가는 데 있다. ©(주)아침미소

우선 6차산업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차산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산업, 2차산업 그리고 3차산업 모두가 융·복합 되어 있는 산업을 말합니다. 좀 더 쉬운 예로, 제주도는 감귤이 대표적인 농특산물이죠. 이런 감귤재배가 1차산업입니다. 감귤이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기도 하지만, 감귤잼이나 주스, 감귤청으로 만

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제조, 가공 공정이 2차산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상품들이 단순히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귤따기 체험이라던가 감귤청 만들기 등의 체험이나 관광,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 3차산업입니다. 이러한 1차, 2차, 3차산업이 한 데 엮인, 모두 더해진 산업 형태를 6차산업이라고 합니다.



(사)제주6차산업협회가 개최한 제3회 플리마켓에 현장지원을 나갔다. 제주6차산업 인증 사업체의 제품 홍보와 매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감귤을 예로 들긴 했지만, 제주가 가진 인프라가 6차산업에 적합한지, 그리고 각 시도별로 6차산업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데 타 시도 대비 경쟁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주야말로 6차산업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산업 분야가 바로 제주의 6차산업을 위한 최고의 인프라입니다. 제주의 6차산업은 청정이미지,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비롯해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 제주해녀, 민속문화인 칠머리당굿 등 자연과 문화, 제주의 모든 것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고, 해외여행이 힘든 요즘 비행기를 타고 가는 휴양지로는 거의 유일한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6차산업 중 1, 2차산업은 지역별로 대동소이하거나 되레 제조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주도가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관광, 체험, 서비스 등의 3차산업입니다.

현재 센터에서 시행 중인 6차산업 지원, 육성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6차산업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원사업이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입니다.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경영체가 6차산업지원센터로 사업자 인증을 요청하면, 단순히 서류를 심사해 인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준비하거나 시행하기 어려운 서류나 심사항목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적의 조건에서 사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국가 및 시도가 인증한 사업체라는 점이 상품의 경



쟁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인증된 제품과 서비스라는 점이 고객에게는 '믿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선택지를 좁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115개 6차산업 인증 업체가 있고,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코칭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인증사업뿐만 아니라, 제품개발, 기업운영, 홍보·마케팅, 공정관리, 제조 시설 신·개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6차산업 사업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컨설팅 및 현장코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 분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것이 지원 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105명의 코칭 전문위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만약 그분들 중에 적합한 인원이 없으면 타시도와 연계해 전문위원을 별도 위촉해 코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지원, 육성사업은 안테나숍 운영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를 모으는 곳입니다. 소비자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설치해 6차산업 인증상품을 홍보·판매하고 소비자의 성향 및 반응을 파악해 제품 기획 및 생산에 반영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 공간으로, 제주 6차산업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안테나숍은 도내 이마트 3곳과 서울 목동과 용산 이마트점, 그리고 제주 성산포 점이 있습니다.

6차산업 지원사업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까?

특정한 사례는 아니지만, 인증갱신율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전국 11개 시도의 지원센터에서 비록 갱신율 1위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87%의 갱신율로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3년마다 이뤄지는 재인증 절차가 서류 준비나 절차상 쉬운 것만은 아닌데, 갱신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6차산업 인증이 사업에 효과적이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증마크에 대한 사업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인증마크가 곧 제품의 품질을 일정 부분 보증해 준다는 점에서 사업자나 고객 모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6차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각 분야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차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것이 모색되고 있나요?

2019년 1,528만 명 이상이던 관광객 수가 작년 1,023만 명을 겨우 넘기며 3분의 2 수준으로 많이 감소한 때문에 6차산업 제품의 매출도 상당폭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판매망에 의존해 홍보 및 판매를 이어왔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향후 변화하는 소비자 성향 및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통한 제주농산물 및 제주6차산업 유통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 각종 DB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판매자도 기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판매가 아닌, 독립적인 통합 유통망을 통해 판매수수료를 없애고 물류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고객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인증 제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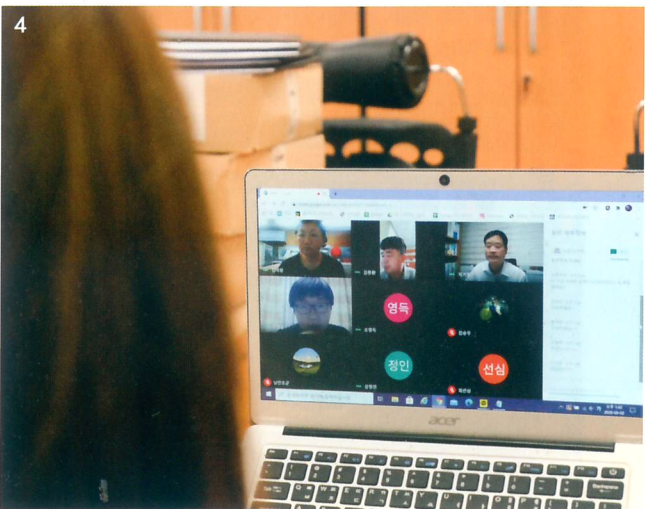
이러서 온라인 판매의 B2C(판매자와 개별소비자)뿐만 아니라, 도소매를 원하는 판매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B2B(판매자와 기업), 또는 B2G(판매자와 정부) 사업까지 병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 제1차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구매상담회





1. 6차산업지원센터 내에 전시된 다양한 제품들
2. 2019년 열린 제1차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3. 2020년 스타트업스쿨 도내 선진지 견학
4.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역량강화 교육
5. 2019년 제주 식품대전의 모습



2021년 제주도정은 6차산업을 제주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가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뒤따라야 할 후속 조치가 많을 텐데 6차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통합플랫폼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통플랫폼은 물론이고, 제품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설비, 패키징 지원, 시제품 제조, 홍보 및 판매·유통망 운영,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공유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점 센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6차산업은 산업 간의 융복합을 얘기하기는 했지만, 주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체들 중심으로 사업이 확장돼 왔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6차산업을 확장하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각 단계 산업이 한 데 엮이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농사짓기 바쁜 농업인이 가공품을 제조할 겨를이 있겠는가 아니라, 농사를 짓다가도 관심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볼 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지만 마땅한 시설이나 정보가 없어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패키징을 위한 디자인센터와 설비, 유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체험·관광 상품으로 확장할 수 있는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저 나름대로 그러한 곳을 통합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통합플랫폼 구축이 시급합니다.

제주형 6차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제주다운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라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한 상품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주의 6차산업 제품에는 제주의 정체성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아이덴티티가

바로 ‘파밍플러스제주(Farming + Jeju)’입니다. 파밍, 즉 농업과 제주가 한데 어우러진 제품이라는 의미와 함께, 제주가 가꾸고 경작한 청정제품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은 슬로건이자 브랜드입니다. 현재 6차산업 제품에는 6차산업 인증마크가 표기되어 있어 고객이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인정해 주고는 있지만, 거기에 제주 이미지를 덧댄다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제주’하면 청정, ‘파밍플러스제주’하면 최고의 청정상품이라는 이미지를 확장해야 제주의 6차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6차산업지원센장으로서는 도민과 독자분들께 전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심입니다. 비록 6차산업이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제대로 된 성과물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 이는 성과와 실적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먹거리,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기에 모두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6차산업 인증마크가 찍힌 제품을 보시게 되면 반갑게 봐주시고, 구매까지 해주시면 우리 제주의 농업이 성장하고 제주의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주의 6차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여력이 충분한 산업입니다. 제주의 ‘미래 먹거리’는 청정 제주의 건강한 농특산물과 천혜의 자연환경에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제주,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독보적인 제주를 함께 가꾸어 가길 기대합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 예정이던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